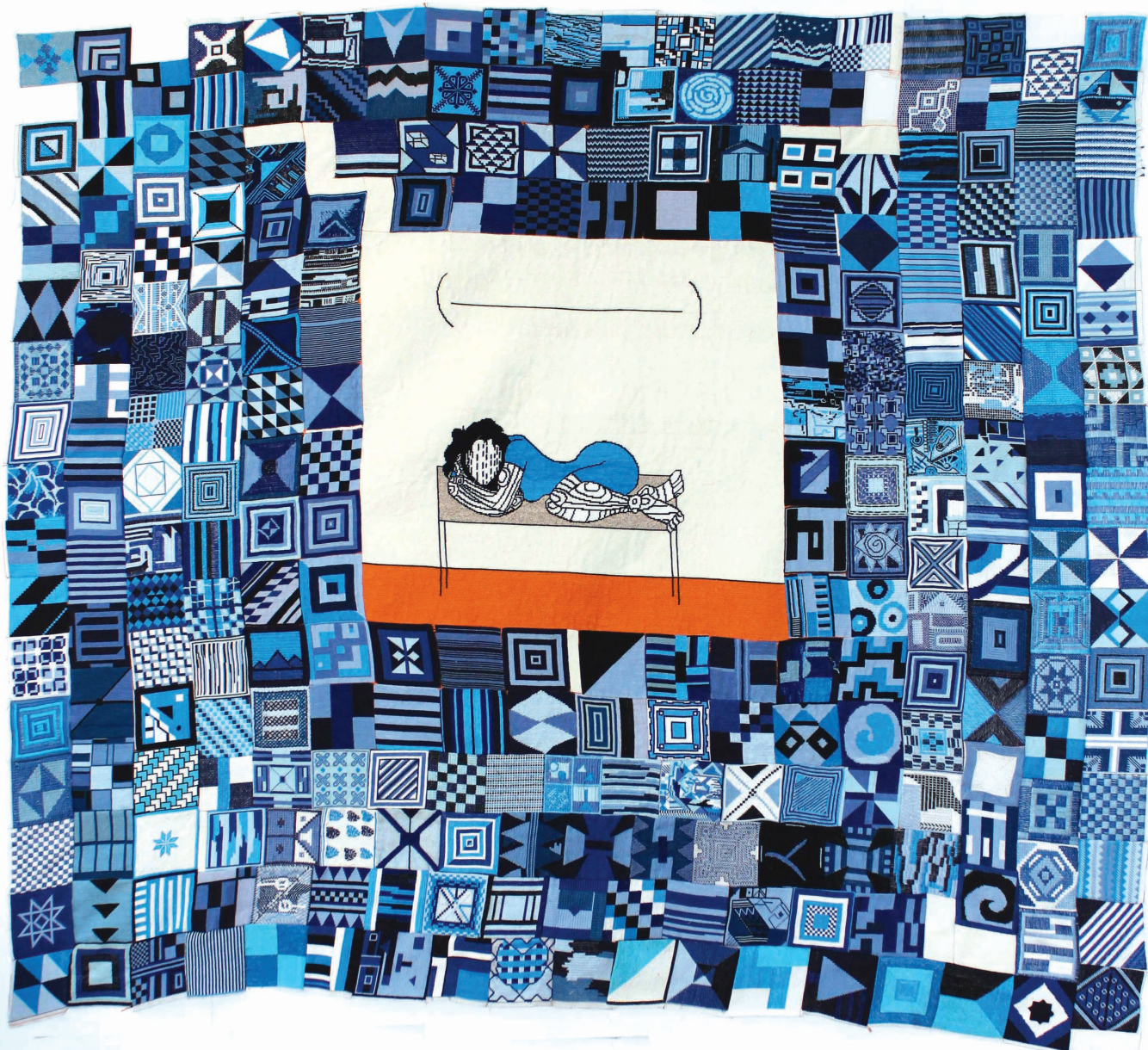


# Lagrmas Negras

## 라그리마스 네그라스 프로젝트





## Lagrimas Negras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을 광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열심히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파랑색, 흰색, 검정색의 실을 가지고 그물망의 캔버스 천에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갑니다. 다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분들은 라그리마스 네그라스 (Lagrimas Negras, 검은 눈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의 화가인 알렉산드라 코탈(Alejandra Comal)에 의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씨는 평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권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여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그리마스 네그라스 프로젝트'는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실상을 알리자는 의도로 시작되었지요.

이 작품들은 태피스트리(캔버스 천에 면을 채워 나가는 자수 작품) 작품으로, 중앙에는 화가가 직접 제작한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이(90cmX90cm) 배치되고, 그 사방으로는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작은 조각들이(15cmX15cm) 한 방울의 눈물이 되어 이어 붙여집니다. 참가인이 많아질수록 작품의 크기는 점점 커져가지요. 현재 8세의 어린이부터 88세의 어르신까지 25여 개국 출신의 여성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그 작품을 제작한 여성 한명 한명의 이야기와 정성이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교사, 학생, 예술가, 기자, 요리사, 의사, 변호사, 정치인, 거리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의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입소문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농촌 여성 모임과 쿠바의 직업 여성 모임, 케냐의 작은 마을 등에서 단체 참여를 신청하였고, 바야돌리드 대학에서는 학사 프로젝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추어 끝낼 예정이었으나, 기대 이상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추어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작품이 완성이 되면 인터넷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며, 판매금 전액은 소말리 맘 재단(Somaly Mam Foundation)에 기부됩니다.

소말리 맘 재단은 캄보디아의 비영리기구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만연하는 소녀 인신 매매 피해자들의 구조 활동과 쉼터 제공,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손에 팔려서 어린으로서 살 수 없었던 수많은 피해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뛰어놀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지요.

대학 때 법 공부를 했던 알렉산드라씨는 예술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화, 수채화, 콜라주, 조각, 아티스트북 등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해온 그녀의 스튜디오 곳곳에는 그 동안 해온 작품들이 뽀뽀이 걸려 있었어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요. 예술은 그 작품 자체로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쓰이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라그리마스 네그라스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자 사진과 비디오 등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의 여성들이 ‘국경없는 의사회’ (Medicos Sin Fronteras: MSF)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스페인 의사들에게서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를 듣고 바로 참여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 본 이들이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한다고들 하지요.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은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자수를 놓고, 지구 다른 한편에서 사는 여성들을 돕는 데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아름답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는데요, 몇몇 남성분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작품의 바탕으로 쓰이는 망사 캔버스 천을 잘라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참여 여성 중 한 명인 클라우디아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예술작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어려운 사정의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참 맘에 들었어요. 거기다가 다른 이를 생각하며 자수를 놓다보면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지요.”

알렉산드라씨는 세계 여성들의 한 마음이 담긴 이 공동 미술 작품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미 브뤼셀 아트 페어에서 작품 설명회를 가졌고, 앞으로 런던과 미국에서의 활동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쪼록 훌륭한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해봅니다.

## Lagrimas Negras

